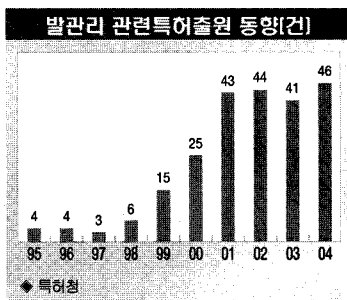


발 관리 특허출원으로 '족(足)건강, 행복 만끽'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발(足)도 인체의 축소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발(足)관리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발(足)관리 관련 특허출원은 안마기, 족탕기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안마기는 전동형과 기구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동형 안마기는 모터나 공기압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발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방식이고, 기구형 안마기는 수동으로 이는 사용자가 툄러 또는 패드로 발을 눌러 주는 방식이며, 족탕기는 물을 가열하기 위한 히터와 공기방울 발생기가 달린 수조 형태의 것이다. 그 밖에 훈증, 원적외선, 초음파, 저주파 등을 이용한 것도 있다. 발관리 관련 특허출원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총 2백31건이 출원되었으며 특히 2000년부터는 출원이 급증하였는데 최근 5년간(2000~2004년)의 출원은 전체 출원의 86.1%, 1백99건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인별로 본 발관리 관련 특허출원은 총 2백31건 중 내국인 출원은 97%, 2백25건을 나타내고 있고 그 출원 2백25건 중에는 개인출원이 97%, 2백18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발관리 관련 안마기,

족탕기 등은 간단한 아이디어에 의하여도 개량 발명이 탄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발관리 관련 특허출원을 기술유형별로 보면 전동형 안마기는 45%, 1백4건으로 총 2백31건 중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기구형 안마기 34%, 78건, 족탕기 15%, 35건의 순이며 특히 전동형 안마기와 기구형 안마기가 총 출원 231건의 79%, 182건을 보이고 있다. 발관리 관련 특허출원은 전동형 및 기구형 안마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안마 기능 외에도 훈증과 찜질과 같은 기능이 부가된 것, 좌욕 기능을 갖는 것, 다른 신체부위도 마사지할 수 있는 것 등 다양하고 복합된 기술이 적용된 발명이 많이 출원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중소기업에 보유 특허 공개

포스코는 다음달부터 자체 운영 중인 전자상거래 사이트(Steel-N.com)에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 특허를 공개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또 사이트에서 검색한 특허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나타나면 기술이전과 지도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15일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신청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 초부터 본격 서비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에 공개할 특허를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포스코는 사이트 문을 연 뒤에도 지속적인 정보 갱신을 통해 중소기업이 최신 특허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가 특허 출원한 건수는 약 2만여 건에 달하지만 권리가 소멸되거나 취소되고 심사진행 중인 건을 제외하면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는 특허는 최대 4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에 대해 기술이전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련부서 검토를 거친 후 사안별로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기술이전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기술이전과 지도는 일단 유상으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향후 '특허기부제도'가 시행되면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상표에도 색깔 바람이 분다

최근 웰빙(well-being) 바람을 타고, 컬러 푸드, 색채요법 등 색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표에도 색깔이 들어가거나 상표 자체에 색깔을 입히는 색채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중갑)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상표에 색깔이 들어가는 상표출원이 '99년 9백67건에서 2004년 1천4백11건('99년 대비 46% 증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를 색깔별로 살펴보면 환경친화적이며, 조화와 균형의 색으로 알려져 있는 초록(Green)과 차분함과

건강함을 상징하는 푸른색(Blue)이 전체의 약 60% 가량을 차지하여 가장 선호하는 색깔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순수함과 깨끗함, 청결한 이미지의 하얀색(White)이 15%, 정열의 색인 붉은색(Red)이 11%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상표 자체에 색깔이 가미되어 있는 색채상표도 2002년 6천1백38건에서 2003년 7천5백98건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한데 이어 2004년에도 8천1백10건이 출원되었으며, 주로 과자, 가공곡물, 음료 등 식품 분야(23%)에 많이 출원되었다.

이처럼 색깔관련 상표가 늘어나

고 있는 것은 색깔명이 들어가거나 색채를 가미하는 경우 상표자체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로 판매 상품의 특성을 잘 나타냄으로써 소비자 들의 상품구매력을 쉽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색깔명이 들어간 상표 자체만으로는 상품을 설명하는 상표가 되기 쉬워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우며,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또한 상표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도형이나 문자 등과 함께 상표를 출원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표출원에 인기 있는 발명가는 누구?

상표를 보면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발명가나 창조인의 이름을 딴 것들이 상당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상표 출원된 발명가나 창조인은 누구일까?

지난 5월 19일 '제40회 발명의 날'을 맞아 특허청에서 발명가 및 창조인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출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위는 '허준', 해외 1위는 '에디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표출원에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난 '허준'의 총 출원 건수는 62건으로, 그는 16년의 연구 끝에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완성해 조선 한방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2위

상표명	출원건수	등록건수	지정상품
허준	62	8	농산물 수산물 의료용기구 건강관리업 음료 주류 서적 한의원업 등
이순신	18	-	농산물 주류 의류 신발류 스포츠용품 연구용 뇌시용품 약품류 등
세종대왕	16	7	농산물 의류 서적 연구 문화예술 및 사회교육 서비스업 등
이재마	13	2	농산물 이미음업 건강관리업 의료보건업 등
공명우	6	4	모사전송기 단지기 사진전송기 등
정영실	6	-	연구 문화예술 및 사회교육 서비스업 등

를 차지한 '충무공 이순신'은 총 18건이 출원되었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총 16건이 출원되었다. 해외 발명가나 창조인 중에

는 특허수가 1천 중을 넘어 '발명왕'이라 불리고 있는 '에디슨'이 총 1백83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프랑스의 미생물학자로 유명한 '파스퇴르'가 1백79건으로 2위, 디젤기관의 발명자로 유명한 '디젤'과 화학자로서 노벨상을 제정한 '노벨'은 각각 1백46건과 1백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유명 발명가나 창조인의 성명을 이용한 상표의 지정상품은 대개 농산물, 의류 및 서적류 등이며, 이 외에도 발명가나 창조인의 특성과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건강관련 제품, 문화예술 및 사회교육서비스업 분야 등에도 다수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기술 표준 주도 위해 특허 강조

삼성전자가 세계 산업계에서 기술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변리사 등 특허 분야 전문인력을 본격 확충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전자업계와 변리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디지털미디어·통신 등 사업 부문별로 변리사·변호사·특허 협상 전문가 등 국내외 특허 전문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특허 해외 업체와의 특허 공유(Cross Licensing) 협상 등 해외 특허 업무 경험자를 집중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IEEE(국제전기전자학회) 등 각종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들이 스카우트의 주 표적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특허 인력 확충 움직임은 올해 1월 윤종용 부회장이 '특허 경영'을 천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백50여명 수준인 특허전담 인력을 2010년까지 4백50명으로 늘리기로 했었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반도체·통신·디지털 홈 등 핵심 분야에서 소니·인텔·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주요 기업들과 표준화 기구를 만들어 기술 표준 주도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특허 전문가 확충의 원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인력이 6만명 이상으로 크게 늘고, 해외 업체와 특허를 공유해야 할 일이 많아져 특허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 / 면 / 안 / 내

- 3 특허기술상품 해외 전용 판로 열리다
- 4 특허심판 '2006년 말까지 6개월 이내' 처리
- 5 제1호 특허담보부 사업화자금 대출 탄생
- 6 이공계 공직 진출, 특허청에 길이 있다
- 9 인물 FOCUS·제11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선정된 여성 발명가 6인
- 10 인천 학익초등학교 발명공작교실
- 12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 13 일본, 특허전 발명등록제 도입
- 14 한국발명진흥회, 이구택 신임 회장 선임